

II.

서울의 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 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 공급 2.2 주택규모별 공급
3 주택가격 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4 주택현황 요약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 재고

주택유형의 구분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된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한다.

표 2-1 주택유형의 구분

구분	유형별 정의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 공동주택
연립 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는 4층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공동주택

자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0년 서울의 주택재고는 340만 호, 아파트가 43.7%로 최다

2010년 서울의 주택재고는 약 340만 호로, 이 중 아파트가 148.6만 호로 43.7%, 다가구주택이 111.4만 호로 32.8%, 다세대주택이 46.3만 호로 13.6%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울의 주택재고는 약 20만 호 증가하였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재고는 증가하였으나, 단독 및 다가구주택 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2 서울시 주택유형별 재고 변화 추이(단위 : 호, %)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계
2000	498,346	-	1,011,158	220,866	182,588	60,221	1,973,179
	25.3%	-	51.2%	11.2%	9.3%	3.1%	100.0%
2005	248,880	987,432	1,258,658	146,877	430,502	30,055	3,102,404
	8.0%	31.8%	40.6%	4.7%	13.9%	1.0%	100.0%
2010	165,295	1,114,843	1,485,869	145,914	463,417	24,435	3,399,773
	4.9%	32.8%	43.7%	4.3%	13.6%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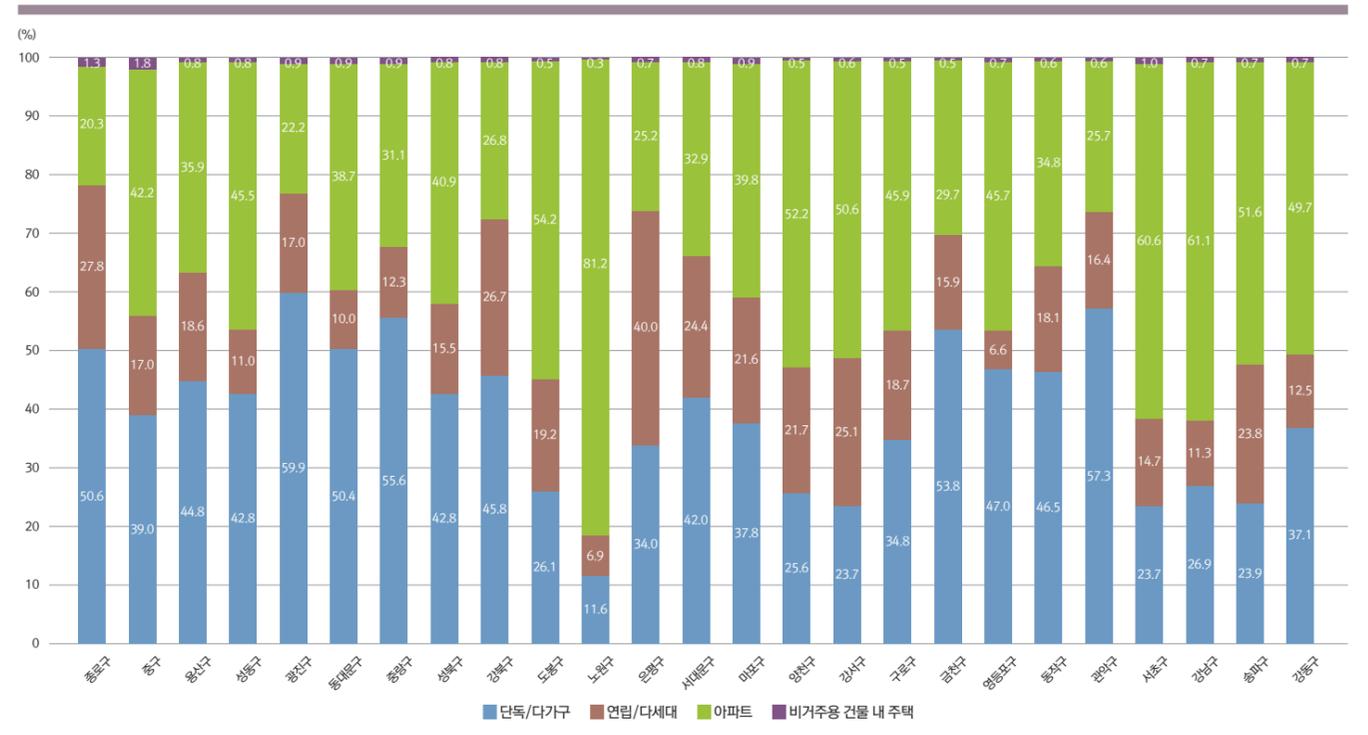
주 : 2000년 주택재고는 기존 산정방식(다가구 동수 기준)에 따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

단독·다가구주택은 광진구에 가장 많이 분포,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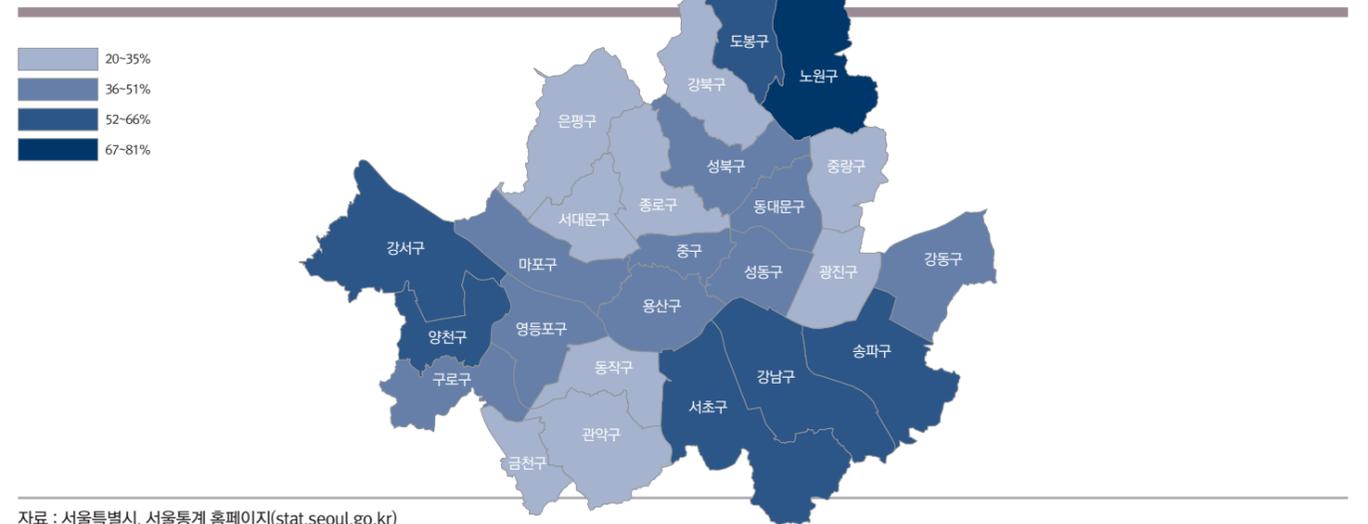
단독·다가구주택은 광진구(60%), 관악구(57%), 중랑구(56%), 금천구(54%) 등에, 연립·다세대 주택은 은평구(40%), 종로구(28%), 강북구(27%), 강서구(25%) 등에 많이 분포한다. 아파트는 노원구(81%), 강남구(61%), 서초구(61%), 양천구(52%) 등 신개발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2-1 자치구별 주택유형별 재고(2010)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

그림 2-2 자치구별 아파트 비율(2010)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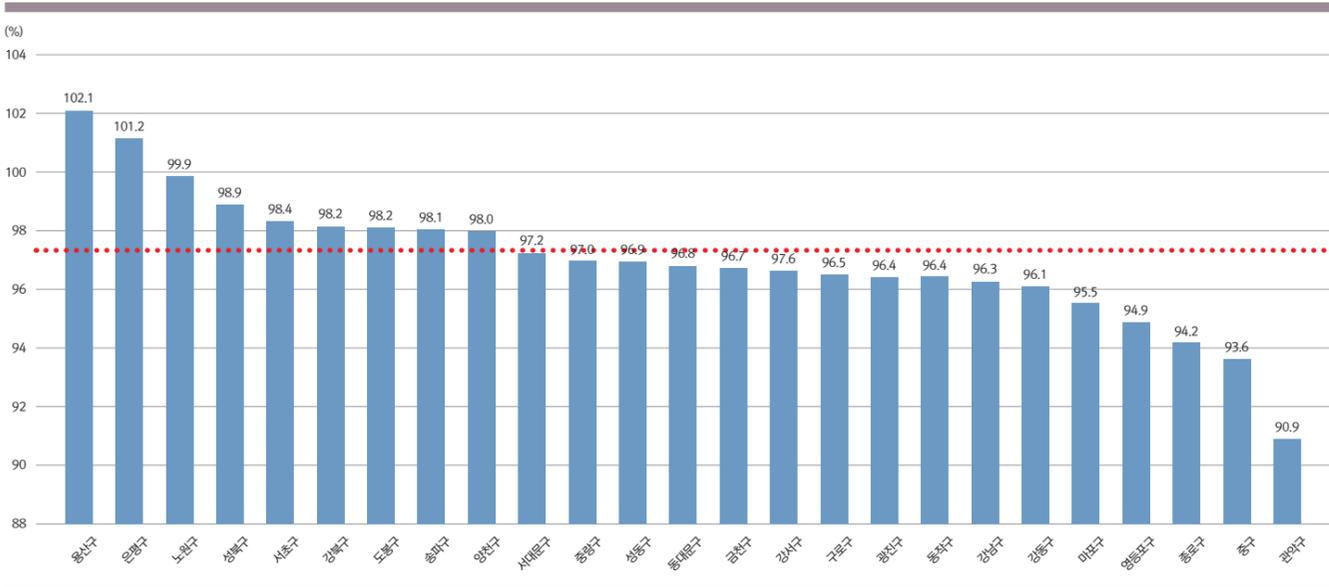
1.2 주택보급률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7.3%

2012년 현재,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97.3%인 반면, 16개 자치구의 주택 보급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와 은평구는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이나, 관악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는 주택보급률이

9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주택보급률에는 고시원 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3 서울시 주택보급률(2010)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

표 2-3 서울시 주택보급률 추이(단위 : %)

연도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택보급률	69.6	77.4	93.7	94.1	93.2	93.6	93.1	97.0	97.1	97.3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

1.3 주택경과연수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7%,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46% 차지

2010년 현재, 서울의 주택재고 244.7만 호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수는 전체 주택수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수도 111.4만 호로 전체 주택수의 46%에 달한다. 단독·다가구주택의 노후도가 타 주택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최초 건축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수가 전체 단독·다가구주택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이 77%로 전체 단독·다가구주택의 3/4이 해당한다. 연립주택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비해 주택의 노후도가 높아 건축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비중이 66%로 전체 연립주택의 약 2/3에 달한다.

표 2-4 서울시 경과연수별 주택재고(2010)(단위 : 호, %)

구분	5년 ('05 이후)	5~15년 ('95~'04)	15~30년 ('80~'94)	30년 이상 ('79 이전)	계
합계	324,972	1,007,747	937,233	176,556	2,446,508
	13.3%	41.2%	38.3%	7.2%	100.0%
단독·다가구주택	11,130	79,648	204,642	101,683	397,103
	2.8%	20.1%	51.5%	25.6%	100.0%
아파트	254,107	644,162	485,049	58,451	1,441,769
	17.6%	44.7%	33.6%	4.1%	100.0%
연립주택	4,047	43,182	83,496	9,726	140,451
	2.9%	30.7%	59.4%	6.9%	100.0%
다세대주택	54,350	234,606	151,867	2,955	443,778
	12.2%	52.9%	34.2%	0.7%	10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338	6,149	12,179	3,741	23,407
	5.7%	26.3%	52.0%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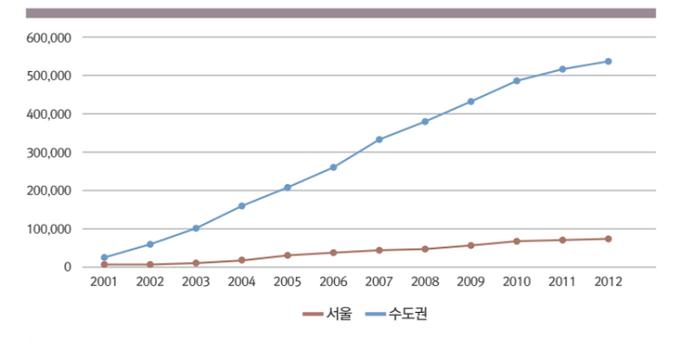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6만 5천 호, 총 주택재고의 약 5%

2010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6만 5천 호로, 총 주택재고의 약 5%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에 인허가된 임대주택은 약 7만 4천 호로 연평균 6천 호가 인허가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인허가된 임대주택은 54만 호로 연평균 4만 5천 호가 인허가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은 2005년 약 1만 3천 호, 수도권은 2007년 약 7만 2천 호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2001년부터 2012년 사이 총 주택공급량 대비 임대주택 공급 비중의 평균은 서울이 10%, 수도권이 17% 수준이다.

그림 2-4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추이(2001~2012)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부문별 주택건설실적.

표 2-5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추이(2001~2012)(단위 : 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공공임대	1,579	1,164	6,515	5,598	13,442	7,122	7,281	3,360	8,294	11,018	4,963	3,529
	총 주택공급 대비 비중	1.2%	0.7%	5.5%	7.1%	25.5%	17.4%	11.3%	6.8%	21.9%	15.2%	5.4%	3.9%
수도권	공공임대	26,850	33,305	43,362	56,986	49,536	51,886	72,444	47,047	51,952	54,506	30,305	22,015
	총 주택공급 대비 비중	6.9%	7.7%	13.2%	23.3%	24.3%	28.6%	22.9%	21.9%	19.1%	20.1%	10.2%	7.5%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주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30년), 공공임대(10년, 5년)를 포함하며,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함.

2004년, 20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민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및 실적이 저조함.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부문별 주택건설실적.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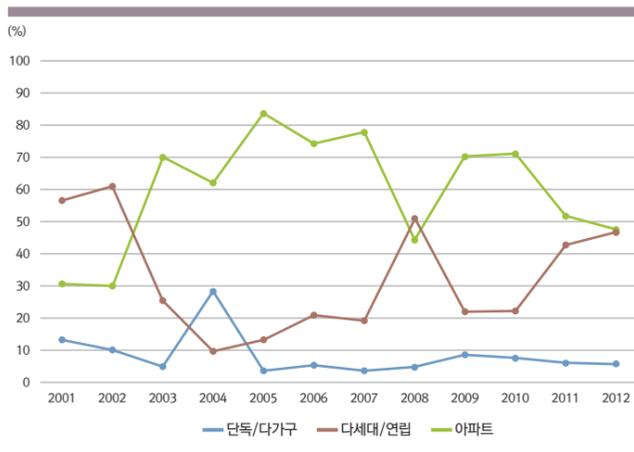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량은 약 4만~9만 호로, 경제 상황에 따라 큰 차이

2012년 현재,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약 8만 9천 세대(세대수 기준 산정 방식)이다.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량은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2002년 17만 여 호로 가장 많이 공급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주택공급량 중 아파트의 비중은 80%에서 48%까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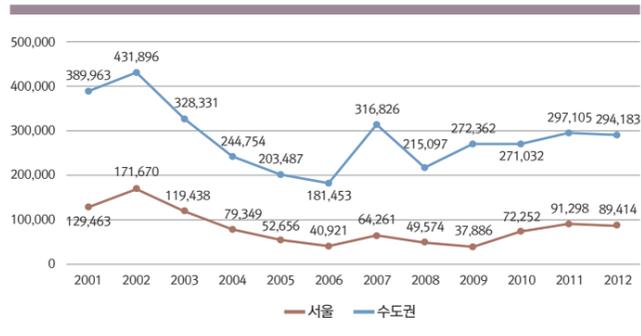
2001년 전체 주택공급량의 30% 수준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공급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하여 2005년 84%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하여 5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비중은 2001년 31%에서 2005년 89%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 중반 이후 감소하여 2012년 현재,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56%를 점유한다. 2010년 이후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아파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다세대·연립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2-6 서울시 유형별 주택공급(200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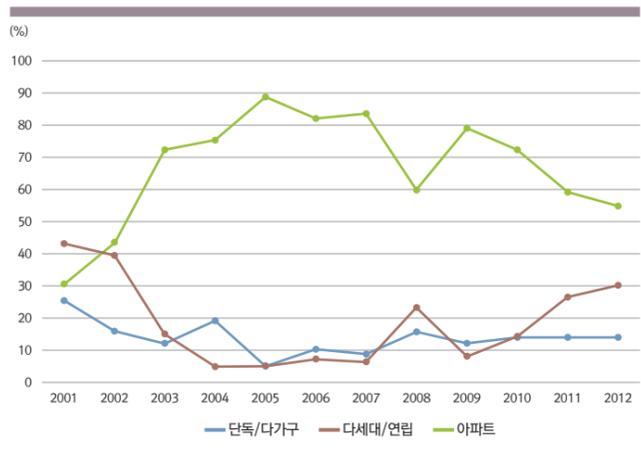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그림 2-5 시기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2001~2012)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그림 2-7 수도권 유형별 주택공급(2001~2012)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표 2-6 서울 및 수도권 주택유형별 공급 추이(2001~2012) (단위: 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단독 다가구	16,471	16,610	5,751	22,210	1,671	2,123	2,193	2,201	3,022	5,195	5,301	4,988
		12.7%	9.7%	4.8%	28.0%	3.2%	5.2%	3.4%	4.4%	8.0%	7.2%	5.8%	5.6%
서울	다세대	70,601	100,418	29,152	7,258	6,631	7,934	11,585	24,730	7,910	15,389	37,845	39,725
		54.5%	58.5%	24.4%	9.1%	12.6%	19.4%	18.0%	49.9%	20.9%	21.3%	41.5%	44.4%
서울	연립	2,971	2,827	924	294	270	513	455	705	328	298	1,045	1,699
		2.3%	1.6%	0.8%	0.4%	0.5%	1.3%	0.7%	1.4%	0.9%	0.4%	1.1%	1.9%
서울	아파트	39,420	51,815	83,611	49,587	44,084	30,351	50,028	21,938	26,626	51,370	47,107	43,002
		30.4%	30.2%	70.0%	62.5%	83.7%	74.2%	77.9%	44.3%	70.3%	71.1%	51.6%	48.1%
서울	합계	129,463	171,670	119,438	79,349	52,656	40,921	64,261	49,574	37,886	72,252	91,298	89,4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단독 다가구	100,376	71,369	41,562	46,979	11,391	18,293	28,944	33,923	32,827	37,379	41,755	41,610
		25.7%	16.5%	12.7%	19.2%	5.6%	10.1%	9.1%	15.8%	12.1%	13.8%	14.1%	14.1%
수도권	다세대	164,945	167,836	47,472	12,002	8,674	10,537	20,105	47,623	20,784	33,223	74,509	83,413
		42.3%	38.9%	14.5%	4.9%	4.3%	5.8%	6.3%	22.1%	7.6%	12.3%	25.1%	28.4%
수도권	연립	4,224	3,916	2,018	856	1,793	2,768	2,323	3,130	2,992	3,042	4,605	5,662
		1.1%	0.9%	0.6%	0.3%	0.9%	1.5%	0.7%	1.5%	1.1%	1.1%	1.5%	1.9%
수도권	아파트	120,418	188,777	237,279	184,917	181,629	149,855	265,454	130,421	215,759	197,388	176,236	163,498
		30.9%	43.7%	72.3%	75.6%	89.3%	82.6%	83.8%	60.6%	79.2%	72.8%	59.3%	55.6%
수도권	합계	389,963	431,898	328,331	244,754	203,487	181,453	316,826	215,097	272,362	271,032	297,105	294,1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존 산정방식(다가구 동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2.2 주택규모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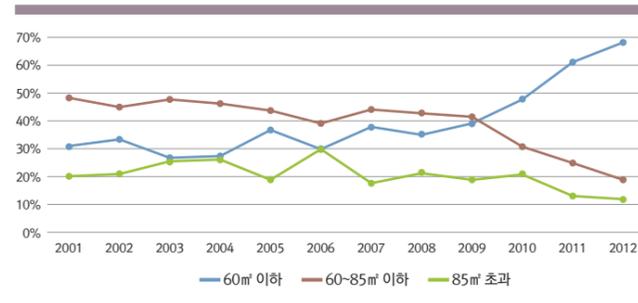
60㎡ 이하 소형주택은 69%까지 급격한 증가세

2012년 신규 공급된 서울시 주택 중 60㎡ 이하 소형주택은 약 5만 9천 호로 전체 주택수의 약 69%를 차지한다. 60~85㎡의 중형주택은 약 1만 7천 호(19%)이고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약 1만 호(12%)이다.

2001년 전체 주택공급량의 31%이었던 서울의 소형주택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69%를 차지한 반면, 같은 기간 85㎡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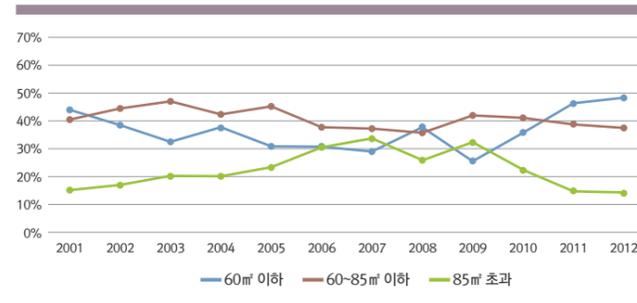
중대형 주택의 공급 비중은 20%에서 12%로 점차 감소하였다. 서울의 중형주택은 2009년까지 4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2년 현재 19%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의 소형주택 공급 비중은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한 반면, 중대형 주택의 공급 비중은 2007년 34%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전체 주택수의 약 14%로 축소되었다.

그림 2-8 서울시 규모별 주택공급(2001~2012)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규모별 주택건설실적.

그림 2-9 수도권 규모별 주택공급(2001~2012)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규모별 주택건설실적.

표 2-7 서울시 주택규모별 공급 추이(2001~2012) (단위 : 호,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60㎡ 이하	36,038	53,586	31,029	15,929	19,072	12,043	23,861	17,204	14,072	33,183	54,432	59,101
		30.9%	33.5%	26.8%	27.4%	36.8%	30.3%	38.0%	35.5%	39.0%	48.0%	61.8%	68.6%
	60~85㎡ 이하	56,755	72,371	55,175	27,081	22,760	15,678	27,870	20,914	15,002	21,555	22,172	16,611
	48.7%	45.3%	47.7%	46.6%	43.9%	39.5%	44.3%	43.2%	41.6%	31.2%	25.2%	19.3%	
	23,797	33,810	29,551	15,112	9,965	11,973	11,111	10,299	7,016	14,452	11,456	10,411	
	20.4%	21.2%	25.5%	26.0%	19.2%	30.2%	17.7%	21.3%	19.4%	20.9%	13.0%	12.1%	
계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39,694	62,842	48,417	36,090	69,190	88,060	86,1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60㎡ 이하	133,680	144,564	97,048	77,083	61,755	53,929	87,904	75,067	65,509	90,103	125,659	130,338
		43.9%	38.4%	32.6%	37.5%	31.2%	31.3%	29.1%	38.0%	25.7%	36.0%	46.2%	48.4%
	60~85㎡ 이하	123,522	167,634	140,180	87,581	89,594	64,963	112,612	70,839	107,229	103,299	106,144	100,908
	40.6%	44.6%	47.2%	42.6%	45.3%	37.8%	37.2%	35.9%	42.0%	41.3%	39.0%	37.5%	
	47,194	64,050	60,061	41,055	46,552	53,166	102,035	51,674	82,420	56,816	40,353	38,044	
	15.5%	17.0%	20.2%	20.0%	23.5%	30.9%	33.7%	26.2%	32.3%	22.7%	14.8%	14.1%	
계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172,058	302,551	197,580	255,158	250,218	272,156	269,2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존 산정방식(다가구 동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자료 : 국토교통부, 연도별 규모별 주택건설실적.

3. 주택가격 동향

3.1 주택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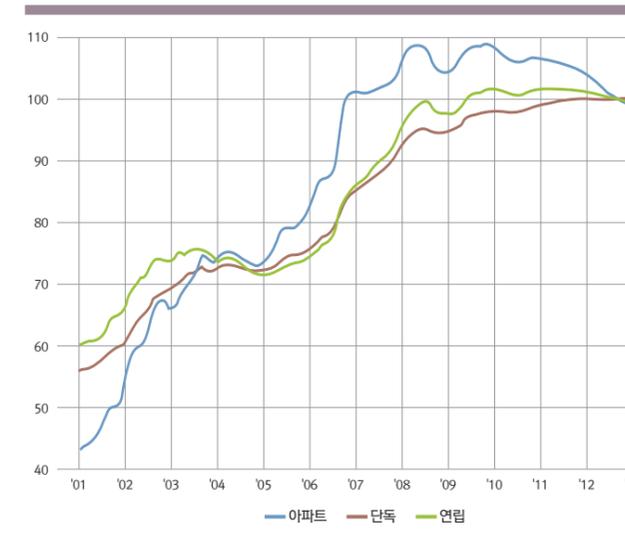
2001~2013년 사이 주택매매가격은 약 2배 상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체

2013년 3월 기준,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01년 1월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체 상태이며, 2009년 12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규모별로는 2008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대형평형이 하락세를 보이나, 소형평형은 다소 상승하였다. 이는 대형평형일수록 상승폭이 적고 하락폭이 큰 반면, 소형평형은 상승폭이 크고 하락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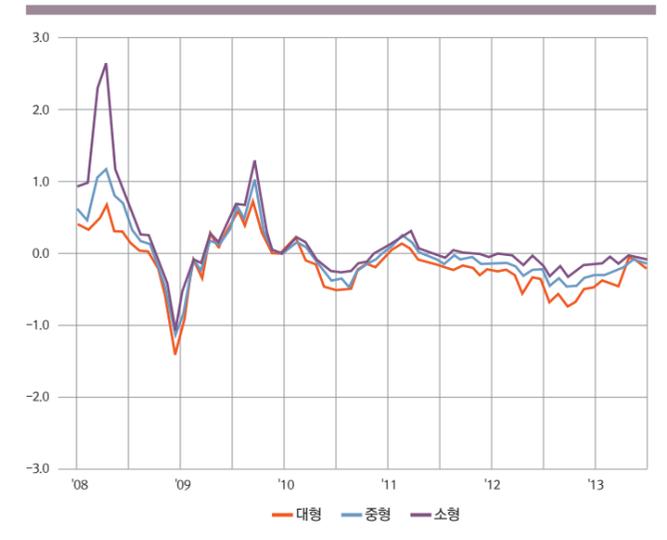
그림 2-10 서울시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2001~2013)



주 : 2013.3.=100 기준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 6.

그림 2-11 서울시 규모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전월대비 상승률(2008~2013)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6.

표 2-8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

구분	'05 12월	'06 12월	'07 12월	'08 12월	'09 12월	'10 12월	'11 12월	'12 3월	'12 6월	'12 9월	'12 12월	'13 3월	
지역	서울	77.4	92.0	96.9	101.8	104.5	103.3	103.6	103.3	102.6	101.5	100.6	100.0
	수도권	77.8	93.7	98.9	103.8	105.1	103.2	103.7	103.3	102.6	101.5	100.6	100.0
유형별 (서울)	아파트	79.7	98.9	102.5	105.8	108.5	106.1	105.6	105.1	104.0	102.3	100.9	100.0
	단독	74.8	83.4	89.2	94.8	97.6	98.0	99.9	100.1	100.2	100.1	100.1	100.0
	연립	73.3	83.7	91.2	98.6	101.1	100.9	101.6	101.6	101.3	100.7	100.3	100.0
규모별 (서울)	대형	-	-	108.7	109.3	111.1	108.5	107.1	106.3	104.9	102.9	101.3	100.0
	중형	-	-	100.1	103.8	106.1	104.4	104.4	103.9	103.1	101.9	100.8	100.0
	소형	-	-	90.3	98.2	101.8	101.2	102.0	102.0	101.6	100.8	100.3	100.0

주 : 2013. 3. 기준 100.0, 전월대비 및 전년 동월대비는 2013.3. 기준임.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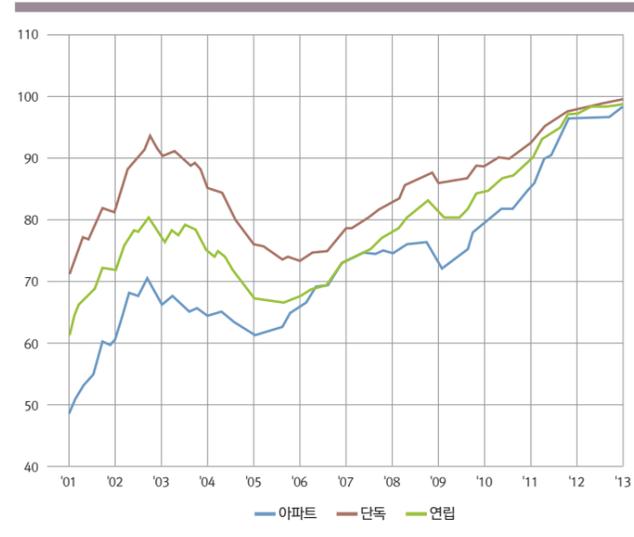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3.

3.2 주택전세가격

주택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아파트와 중·소형평형이 가장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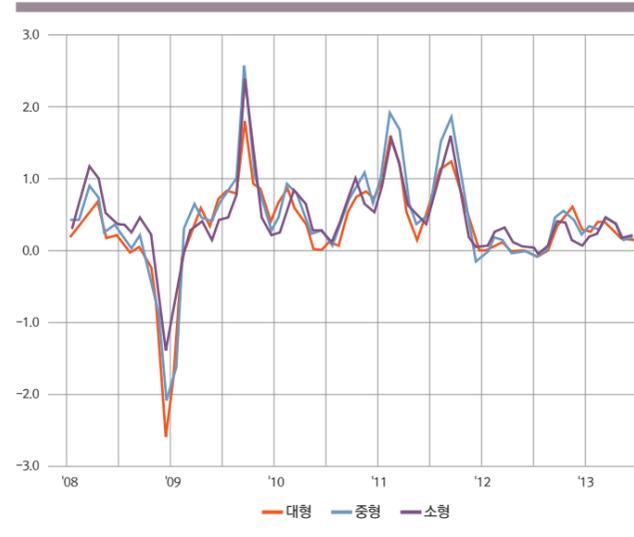
2001년부터 2013년 3월 사이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중·소형이 대형평형에 비해 전월대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에는 규모별 상승폭 차이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서울시 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2001~2013)



주 : 2013.3.=100 기준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6.

그림 2-13 서울시 규모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전월대비 상승률(2008~2013)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6.

표 2-9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

구분	'05 12월	'06 12월	'07 12월	'08 12월	'09 12월	'10 12월	'11 12월	'12 3월	'12 6월	'12 9월	'12 12월	'13 3월	
지역	서울	67.4	74.0	76.8	77.6	82.3	87.5	97.0	97.5	97.6	98.0	98.0	100.0
	수도권	67.8	74.8	77.6	78.9	82.3	87.5	97.1	97.6	97.7	98.2	98.2	100.0
유형별 (서울)	아파트	65.5	73.1	74.7	73.4	79.3	85.2	96.6	96.9	96.9	97.3	97.3	100.0
	단독	73.5	78.5	82.9	86.6	89.1	92.5	98.1	98.7	99.0	99.3	99.3	100.0
	연립	67.3	73.2	77.7	81.5	84.6	89.7	97.2	98.2	98.4	98.8	98.8	100.0
규모별 (서울)	대형	-	-	80.5	79.2	83.8	88.6	97.2	97.4	97.3	97.5	97.5	100.0
	중형	-	-	74.9	74.9	80.6	86.4	97.0	97.3	97.2	97.7	97.7	100.0
	소형	-	-	75.3	78.1	82.6	88.0	97.1	97.8	98.0	98.4	99.1	100.0

주 : 2013. 3. 기준 100.0, 전월대비 및 전년 동월대비는 2013.3. 기준임.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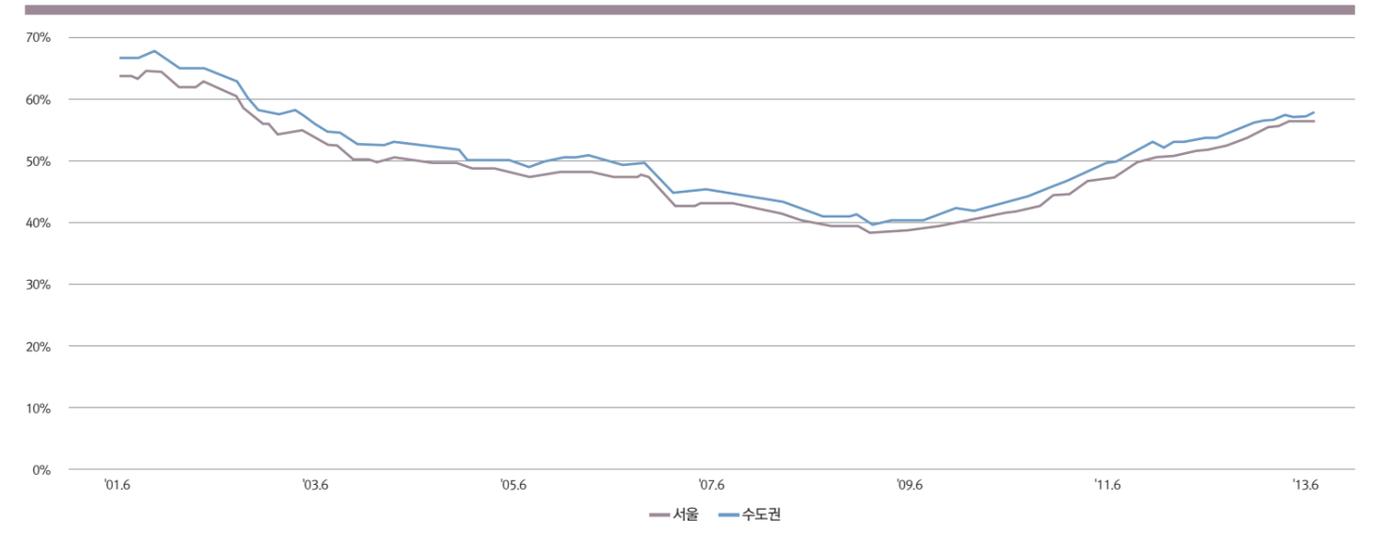
3.3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2013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4.5%, 2009년 이후 계속 증가세

2013년 6월 현재,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58.6%이고 서울 평균은 54.5%, 수도권 평균은 54.8%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이 58.0%, 아파트가 56.7%, 단독주택은 40.9%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2001년 6월 64.0%에서 2009년 6월 38.9%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월 현재 56.7%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서울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2013년 6월 현재, 57.8%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3년 6월 현재 63.7%이다.

그림 2-14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추이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6.

표 2-10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단위 : %)

구분	'01.6	'02.6	'03.6	'04.6	'05.6	'06.6	'07.6	'08.6	'09.6	'10.6	'11.6	'12.6	'13.6	
서울	아파트	64.0	61.9	53.5	49.7	47.7	47.5	43.1	39.3	38.9	42.1	47.4	52.1	56.7
	단독	-	-	-	-	-	-	-	-	-	-	38.4	39.5	40.9
	연립	-	-	-	-	-	-	-	-	-	-	53.2	56.2	58.0
	소계	-	-	-	-	-	-	-	-	-	-	47.1	50.7	54.5
수도권	아파트	66.8	64.3	55.7	52.6	49.7	49.8	45.2	41.4	40.6	43.9	49.6	53.9	57.8
	단독	-	-	-	-	-	-	-	-	-	-	39.5	40.3	38.3
	연립	-	-	-	-	-	-	-	-	-	-	53.5	56.2	56.4
	소계	-	-	-	-	-	-	-	-	-	-	48.9	52.3	54.8

주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함.
 자료 :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2013.6.